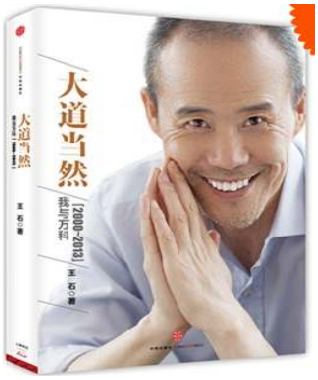
CHINESE TITLES



제목 : 大道当然

가제 : 나와 완커 (ME AND VANKE)

저자 : 王石 왕스

발행일: 2014년 03월 01일

분량 : 400

장르 : 경영

<내용소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인 완커의 회장이자 전설적 기업가로 불리는 중국 기업가 왕시(Wang Shi)가 말하는 13년간의 경영기

파트 I: 2000-2004

이 시기 왕시는 GM에서 물러난 뒤 자신이 영민함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등산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에베레스트를 포함 7대륙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등정하기에 이르고, 등반 여정 동안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그는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된다. 눈 덮힌 봉우리들을 오르다가 완커의 창립을 통해 시장의 높고 낮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당시 그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머리 속을 맴돌고 있었다. 부동산 사업계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으며 이가 완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사업의 전망은 앞으로 얼마나 밝을 것인가?

파트 II: 2005-2010

완커와 왕시 모두에게 2005년은 이정표와도 같은 해였다. 완커의 부동산 보유량은 급증했고, 그는 북극과 남극의 높은 봉우리들을 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사이, 세계적 금융 공황상태가 발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고, 인터넷에는 완커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다. 2008년에는 재앙 같은 눈사태와 쓰촨 지진이 중국을 덮치는데, 당시 완커는 지진사태에 많은 성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왕시는 완커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왕시는 전 세계적인 등반 경험과 생태계 보호 캠페인, 그리고 기업 경영과 환경 보호를 아우르며 결국 완커는 "저탄소 경제" 개념의 선두 기업이 된다.

파트 III: 2011-2013

마지막 부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저자는 미국 유학 경험을 다룬다. 그는 이 시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자신이 관찰한 것들과 통찰력을 다룬다. 재벌이 된 왕시는 하버드를 자신의 유학지로 정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영어를 마스터하고 연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완커의 회장으로서 그는 회사를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미국에 머무르고는 있었지만, 완커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그는 하버드에서 배운 원리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
선진(Shenzhen)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나,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나 그는 항상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타인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을 즐겼다. 또한 새로운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다양성과 신선한 노하우를 결합하는 것에 많은 인내심을 보였다. 그의 기업가적인 지혜와 모험적인 정신은, 완커가 다음 정상을 등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저자소개>

왕시

저자인 왕시는 2013년에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50대 비즈니스 사상가에 선정된 경력이 있다. 그는 1951년 생으로 중국 심천에서 떠돌며 대학생활을 비롯해 군인, 노동자, 공학기술자, 무역통역을 거치며 세상 경험을 쌓았다. 1984년에는 심천 현대 과학교육 측정 전람 센터를 열어 기업 최고 책임자직을 맡았다. 1988년 이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며 차이나 반케(완커)가 되었고, 이때 대표이사 겸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1999년에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놓고 지금은 회장직만 맡고 있다. 1999년 포춘 포럼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산업화와 규모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000년에는 온라인 중국 도시 부동산개발 업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대의장에 추임 되어 업계의 질서 존속과 공신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여가생활로 극한의 스포츠를 즐길 뿐만 아니라 여행과 사진촬영에도 조애가 깊다. 2003년 5월 22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산맨 등반에 성공하며, 2004년 7월 28일에는 세계 7대주 최정상 등반을 모두 마쳤다. 그 이후로도 2005년 전후에 북극점과 남극점에 까지 도달하며 7+2 계획을 달성 했다. 또 다른 저서로는 <배회하는 영혼>, <생명고지>, <길 위에서> 그리고 사진집인 <제8의 최고봉>이 있다.

제목 : 與父母和解
가제 : 부모와의 화해
저자 : 許皓宜 쉬하오이
발행일: 2015년 01월 29일 (대만)
분량 : 245
장르 : 심리

<내용 소개>

이 책이 선사하는 올 한해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정!
내 안의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화해해 가는 여정!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총 여섯 명이 관여되어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말이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부모와의 화해가 자아각성의 시작이 된다.
왜 나는 사람들과 지내기가 힘이 들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과 연관 되어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치 낙인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부모들의 희로애락의 흔적들. 이 흔적들이 우리의 감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모는 당신에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까지 선사한다!
10년 이상의 심리상담 경험을 토대로 작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자신의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치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가정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한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부모로부터 전달된 우리를 자극시키는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깨달아야 한다. 작가는 박식한 심리학 지식을 기반으로 섬세한 문체를 통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던 일면, 즉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들을 들추어 낸다.

<저자소개>
쉬하오이
작가는 국립 대만사범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지낸 후 심리 상담가로 활동했다. 대만 국립 타이베이 예술대학교 일반학부 전임교수를 맡으며 학생 상담센터 주임을 겸했었다. 대만 내에서 결혼과 가정치료를 주 분야로 삼아 공영 텔레비젼 프로그램인 '우울한 엄마아빠'등에서 객원패널로도 활동했다. 장기간 심리 상담사 활동을 거친 작가는 때로는 온기가 전해지는 유머와 함께, 때로는 예

리하게 문제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파고든다.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건과 기억 속의 전형적인 우리의 부모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해 부모를 거쳐 주변사람과 얽힌 많은 관계에 대해 풀어낸다. 작가는 우리가 부모도 불완전 할 수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가치와 매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피력한다.
작가의 또 다른 저서로는 <폭력적이지 않은 정서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방법>, <사랑의 사계 속에서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가 알려주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등이 있다.

<일부 목차>

머리말

1장: 화해하기 전의 자아관찰- 마음속 16종류의 어린아이 자각하기 (믿음의 위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곤란함을 느끼는가?
무엇 때문에 약한 모습이 보여지는가?
연습1: 자기 찾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지 않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가?
연습2: 감정시스템 가동하기-모든 행위는 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연습3: 용감하게 부모에게 대항하기- 부모의 책임은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무엇 때문에 다른 이에게 기대는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는가?
연습4: 마음속의 어린아이 돌보기- 약했던 나 자신에게 말 걸기

자주에 대한 대가 책임지기
무엇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용기가 부족한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가?
연습5: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유감은 버리기-자신에 대한 책임지기

심리적 분열
타인의 장담점 재정의: 사랑과 증오의 교차

내면의 천사와 악마 재정의: 가면 뒤의 나

관계 속 장담점 재정의: 가정의 삼각구도

남성과 여성의 내면적 특성 재정의: 성차별의 억압

연습6: 환상 속의 완전한 부모와 이별하기-사실 불완전한 것이 현실적인 인생이다.

제목 : 大家說孔子，大家說孟子，大家說老子，大家說莊子
가제 : 모두가 말하는 중국사상 시리즈 (4권)
저자 : 岑澎维 천펑웨이
발행일: 2011.9-2015.1 (대만)
분량 : 권당 245
장르 : 청소년문학

논어의 공자부터 맹자, 노자 그리고 장자까지! 국어일보아동문학 목동피리상을 수상하였고, 진국정아동문학상, 남성문학상, 문건회대만문학상 등 다수의 아동문학상 수상경력의 작가가 새로운 관점에서 쓴 어린이들이 읽기 좋은 중국사상 시리즈!

<내용 소개>

시리즈의 특징

▪1인칭 시점으로 쓰여있어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
▪ 그당시 역사 현장에 온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일러스트
▪ 원문과 해석본을 함께 실어 고문 (古文) 을 읽는 힘을 기를 수 있음
▪ (天长地久:하늘만큼 길고 땅만큼 오래되다, 우정이 영원하다), 공성신퇴 (功成身退: 공을세워서 이룬뒤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겸손해야 함 강조) 등 논어, 도덕경등에서 등장하는 성어들을 학습할 수 있음

1. 모두가 말하는 공자.

누구나 다 공자의 <논어>를 배워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혜로운 공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의 성격이나, 고집부터 그의 내면 세계까지! 공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작가는 시공을 초월해 공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공자의 가족, 학생과 군왕 등등 공자를 만나보았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지 못했던 공자에 대해 알아보자! 공자를 이해하고 나서 읽게 되는 논어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2. 모두가 말하는 맹자

사기의 작가이자 맹자에 대해 처음 기록한 사람인 '사마천'은 맹자에 대해 기록한 것이 너무 적어 사람들이 맹자란 사람에 대해 알기 힘들다는 평을 받는 다고 말한다. 성인에 버금간다는 뜻으로 아성(亞聖)으로 불리는 맹자,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맹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보자!

3. 모두가 말하는 노자

노자가 남긴 유일한 작품 <노자>라는 책은 성경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의 사랑을 받아 온 작품이다. 짧디 짧은 5천자의 한문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 당태종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인들이 모두 노자의 열혈 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왜 노자에 열광하는 것일까?

4. 모두가 말하는 장자

우물 안 개구리 (井底之蛙 정저지와), 조삼모사 (朝三暮四) 등은 모두 장자의 재치 있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는가? 모두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상가 장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자소개>

천펑웨이

타이동대학아동문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국어일보아동문학 목동피리상을 수상하였고, 진국정아동문학상, 남성문학상, 문건회대만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라진 초등학교>,<모두가 말하는 공자> 는 올해의 최우수 아동읽기물 상을 수상하였다. <모두가 말하는 중국사상시리즈> 이외에도 <최초 대통령 링컨>,<투자의 대가 워렌버핏> <꼬마 책벌레 생활일기> 등이 있다.

<본문이미지>

2 老漆匠說：
沒有官位才能逍遙

我是家國的一個老漆匠，一輩子都在為國家做刷漆塗繪的工作。

別看我這個行業不起眼，沒有了我們，許多器具就會腐朽。

想想看，木頭造的東西不上漆，風吹日晒雨淋，年深日久，怎麼能不壞？宮殿年年要粉刷，戰車、刀槍、矛杆、盾牌，樣樣要保養，樣樣都靠漆。

我們的國君整天想著打仗的事，不是東邊的齊國，就是南邊的楚國，西邊的魏國，我們這小小的國家，簡直就是一座戰場，打贏了，樹立更多的敵人，人家還會回來打；打輸了，人家追著打過來。

連年戰爭，苦了百姓也苦了我們這些漆匠。

要打仗，武器就要保養，我們沒有親自上戰場，可是也不輕鬆哪！漆漆刷刷，從來沒有停過。

不說這個了，看看今年的漆樹，長得似乎沒有往年好，收下來的漆，分量也減少了，這

第一章 百年李樹說：
滿城的紫色霧氣

我是一棵有百年歷史的李樹，生長在春秋時代的楚國，一個叫「曲仁里」的村子，曲仁里附近，千年以上的老松樹多得是，一棵百年李樹，稱不上什麼了不起，可是，我親眼看見一件神奇的事，所以我可以談談這件事。

那是在我少年的時候，還只是一棵十幾歲的李樹，我們楚國苦縣厲鄉的曲仁里裡，一個年輕的婦人懷孕了。

這個年輕的婦人，長得十分清秀，我常看到她小心翼翼的抱著

籃子，在村子裡走動。

李花盛開的時候，她常常到我身邊來，從我身上折下一朵花，就在鼻尖前，深深的吸一口氣，然後插在髮髻上。

婦人就像這個開滿桃花、李花的曲仁里一樣，積蓄又溫雅。

好不容易九個月過